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Mother's Day(5/10)
  - 창립 44주년 부흥성회(5/14~16, 강사: 김병삼 목사)
  -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5/17)
  - 교회 대청소(5/16)

가정교회 보고서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가정교회 예배안 2026. 5. 10

### 5월 둘째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을 만들자 (빌립보서 2:1-4)

#### ■ Welcome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족과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한 가지 나눠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빌립보서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 ■ 서론

5월은 어머니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세우신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번식, 보호를 위해 세우셨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다.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기에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피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의 가정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 \* 2025년 미국 가정의 문제와 갈등 원인에 대한 미국 가족 조사 결과

1) 경제적 요인 (가장 큰 원인), 2) 관계 및 정서적 요인, 3) 정신 건강 및 디지털 환경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 가정 안에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므로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 ■ 관찰 질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해답 1.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1절).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빌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여성 지도자 외에도 교회 안에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상기시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말한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다. 권면은 ‘위로와 격려’를 의미한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또한 주님은 사랑의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위로하신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고 참된 위로가 임한다.

또 성령께서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도 계속 부어진다.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한다. 너희가 받은 은혜로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라고 권면한다.

## ✿ 적용 질문 1

1) 지금 내가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거나 힘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위로, 사랑, 긍휼)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 해답 2.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2절).

2절에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가득하다. 가정의 분쟁은 대부분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면 분쟁은 사라진다. 가정의 참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가정을 다스리신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때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다.

가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른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결정을 따라서 아내와 자녀는 순복해야 한다. 순복은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다. 동의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다.

(벧전 3:1)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 ✿ 적용 질문 2

1) 우리 가족이나 소그룹 안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결정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해답 3. 겸손해야 한다(3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즉, 겸손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남을 무시하게 된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형과 누이가 자신을 비난할 때 잠잠히 주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겼다. 그 결과 주님이 그 형제들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높이셨다.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맡긴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가정에서도 동일하다. 가족이 상처 주고 비난할 때 겸손한 사람은 잠잠하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지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선으로, 친절로, 사랑으로 반응한다. 그 결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 \* 겸손의 실제 방법

1) 듣는 시간을 늘려라, 2) 먼저 내 책임을 인정하라, 3) 당연함을 감사로 바꾸라 4)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실천하라, 5) ‘나’를 줄이라, 6) 먼저 인사하라

## ✿ 적용 질문 3

1) 위에 제시된 ‘겸손의 실제 방법(듣기, 책임 인정, 감사 등)’ 중 내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항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이번 주 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봅시다. 왜 그것을 선택했나요?

## 해답 4. 내가 먼저 섬김을 주어야 한다(4절).

마지막으로 가정의 행복은 겸손의 자세로 섬길 때 온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셨다. 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먼저 수고하여 섬기는 뜻이다.

가정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귀찮은 일을 먼저 맡으며 힘든 상황에서 먼저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반대로 가야 한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행하며 그 마음으로 상대를 섬긴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도 먼저 연락한다. 대접받지 못해도 먼저 대접한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내가 먼저 돕고 섬길 때 결국 내가 받게 된다.

## ✿ 적용 질문 4

1)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행하라’는 원리처럼, 내가 배우자나 자녀(혹은 이웃)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섬김 한 가지를 정해 이번 주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실천해 봅시다.